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 위원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대표자 여러분.

18 기에 이어 19 기에도 동남아북부협의회를 이끌게 되신 송광종 협의회장님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리랑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찾아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수석부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출범식 축하를 위해 함께 해주신 김창범 대사님과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서해구 말레이시아 지회장님과 최남숙 싱가포르 지회장을 곳곳에서 참석해주신 93 명의 동남아북부협의회 위원님,

출범식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민주평통 사무처 실사단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해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 자카르타에서는 지난주 한국-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 주년 기념식이 성대히 개최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임성남 아세안 대사님께서도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주지하시듯,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서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정확히 2년전 민주평통 18 기 출범과 때를 같이해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시면서,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 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외교적 지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즉,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 모두 충분히 주지하고 있으며, 고국 대한민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대통령님께서서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큼니다.

고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성공 여부나,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홍보하고 각인시키기 위해 동남아 남부협의회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남아 남부협의회 위원님,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은 공공외교의 첨병이자 주역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해외 간부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거행된 19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민주평통이 내디딘 발걸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활동은 공공외교의 역사 그 자체였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님의 언급대로 우리에게 19기 임기 2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새 역사를 써야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는 각오를 다지는 동남아 북부 협의회의 출범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국 정부도 공공통일외교역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외평통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국의 이러한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2년동안 위원님 개개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